

94년도 산업재해 현황

재해율은 감소추세,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

산업재해 발생율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그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, 특히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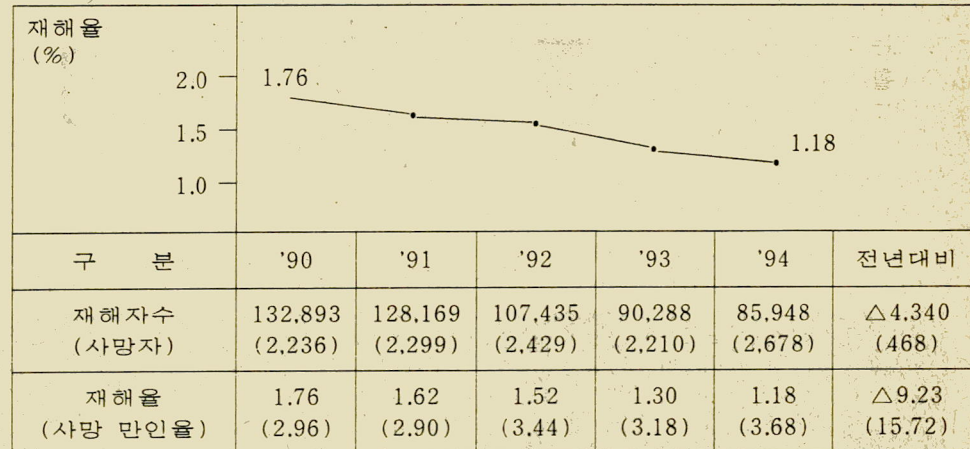
한국산업안전공단(이사장 우성)이 최근 발표한 「94년도 산업재해 현황」에 따르면, 94년의 경우 재해자는 8만5천9백48명이 발생하여 4천3백40명(4.8%)이 감소했으나 사망재해는 4백68명(21.2%)이 증가하였다. 산업안전공단측은 이렇게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써 '경기활성화에 따른 가동율 증가와 미숙련공 고용증가, 교통 및 질병 등에 의한 발생비율 증가,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확대, 재해발생에 대응하는

예방사업 수행 미흡'등을 들고 있다.

산재발생 사업장의 특징으로서는 우선 3백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전체 재해의 75.9% (6만5천2백45명)를 차지했으며,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도 46.5% (3만9천8백2명)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중소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에 대한 대비가 미흡함을 드러냈다. 또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전체 재해자의 74.8%가 발생했으며, 사망자 수는 55.1%를 차지했다. 사망재해 발생 원인으로서는 추락 협착 감전 화재폭발 등에 의한 복합재해가 43.3%로 으뜸을 차지했고, 교통재해가 24.1% (6백45명), 질병이 21.1%

(5백65명), 진폐·광산재해가 11.5% (3백8명)였다.

한편 직업병 유소견자는 그동안 난청, 진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, 광산의 진폐환자와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(특수건강검진자 가운데 유소견자 발생율은 90년의 1.41%에서 93년 0.71%로



감소).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인 감소라기보다는 누락 은폐 등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소화기계, 순환기계 등 만성·퇴행성 질병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

있다.

따라서 산재사고가 빈발하면서 예방능력이 미흡한 중소영세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, 중대재해가 많이 발

생하고 있는 조선업체, 설비의 노후화로 사고가 많은 화학공장, 위험한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예방대책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고,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와 사전 건강검진 대책 등이 강구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.

〈송병춘 기자〉

구 분	계	50인미만	50~99인	100~299인	300~499인	500인이상
재해자수 (사망자)	85,948 (2,678)	39,802 (1,038)	10,646 (373)	14,797 (516)	4,750 (176)	15,953 (575)
구성비(%)	100.0	46.3	12.4	17.2	5.5	18.6

구독신청 394-1438~9

